

경기도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 장려를 위한 지역별 차별화 방안 연구*

오세숙** · 이종성*** · 김종순****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노인여가 복지 기반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기도 지역 발전지수와 비교한 후, 도출된 유형별 노인여가 복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수, 재정자주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및 이용 노인인구, 노인여가 예산액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노인인구수와 재정자주도를 통한 1차 유형은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노인인구가 적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 마지막으로 노인인구가 적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등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노인여가 관련지수인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노인여가 예산액,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인구를 통한 2차 유형은 1차 유형에서 분류된 유형 4가지를 토대로 노인여가 관련지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둘째, 분류된 유형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와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분류된 8개의 유형에 대해 ERIC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해 증가 및 창조해야 하는 요소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공원의 숫자와 새로운 노인 여가 프로그램 등이 주로 거론됐으며, 제거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 요소에서는 주로 지역별 대중교통경쟁력이 분석되었다.

주요어 : 경기도, 노인 여가, ERIC분석, 도시 유형화, 여가정책

* 이 논문은 2014년도 경기도의회 연구비 지원으로 발행된 고령사회포럼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경기대학교(주저자)

***한양대학교(교신저자, E-mail:cameroncrazie@hotmail.com)

**** 경기대학교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2018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 노인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 예상대로라면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05).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바탕으로 각 시·군·구별 고령친화 사회·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대응체계로써 노인들에게 긍정적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여가 및 복지기반의 확충, 노인 운동 전문지도자 배치 및 지도와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등을 아우르는 것이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 여가 및 복지 기반 마련은 단순히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주어진 많은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여가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향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년기 여가활동을 다룬 다수의 논문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의 참여는 노인들로 하여금 정서적 행복감의 상승, 사회적 지지자의 확보, 자아정체성의 회복, 사회적 의료비 절감,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및 생활전반의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김명미, 2013; 김용국, 이경숙, 2011; Iso-Ahola & Park, 1996; Rowe & Kahn, 1997).

이와 함께 노년기의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인전담 체육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다룬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시설유형별 체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김양례(2013)의 연구는 시설유형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짙어 시설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김정현, 김현일(2012)은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선호도 분석을 통해 스포츠·건강 프로그램과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안병주, 김희정(2008)은 노인여가프로그램으로 무용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했다. 한편 노인전담 체육지도자에 관해서 김설향, 정복자(2009)는 노인전담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

전문성 확보와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김선희(2009)는 노인전담 체육지도자가 노인들의 건강관리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개인적인 걱정과 고민을 함께 공유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노인 여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여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김양례(2012)는 노인여가정책은 노인거점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농·어촌의 경우 새로운 노인여가시설이 건립된다고 해도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 시설문제는 시·군별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경자, 박정근, 김성문(2014)은 도시 지역 노인들의 여가의 목적이 건강증진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관계형성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손신영(2006)은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이 취약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전국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아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고 도시, 농촌, 도·농 복합도시가 산재해 있어 일괄적인 노인여가복지 정책을 사용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별 노인여가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는 지난 2010년 8월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노인층 진입과 2000년대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2026년에는 경기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0% 수준인 2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노인 자살,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동아일보, 2010, 8, 24).

이처럼 심각한 경기도의 고령화 현상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인 노인여가 복지 정책의 구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각 지역별로 다양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관련해 경기복지재단(2009)은 경기도 노인복지의 최대 약점으로 지역별 다양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16개 일반시, 11개의 도·농 복합시와 4개의 군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7년에 수립된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11개 서울 생활권 지역(4개 서울거점분담지역, 7개 서울생활권지역)과 20개 경기 생활권 지역(4개 경기거점지역, 16개 경기생활권지역)으로 나누어진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지역별 노인여가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자치구의 노인 여가스포츠정책을 비교한 임태성, 최성락, 백선아(2006)의 연구와 전북지역 노인

여가스포츠정책의 현황을 비교 연구한 최웅재, 박기주, 최덕환(2012)의 연구가 있다. 이 두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와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노인여가스포츠 시설 수, 노인여가 스포츠와 관련된 지출현황, 지도자 숫자와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했다. 결국 이 두 연구는 모두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나머지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차별화된 노인 여가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연구는 해당 지역의 시·군을 유형화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 노인여가시설, 예산,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현황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 노인여가의 정책방향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노인인구를 배제한 채,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각 시·군별 노인여가 현황을 분석했기 때문에 각 시·군별 노인인구의 규모가 노인여가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노인인구수, 재정자립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인구수와 노인여가 관련 예산액 등을 활용해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통해 노인여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군의 유형화를 위한 통계자료로 노인인구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인구수를 사용했다. 경기도 각 시·군별 노인인구수를 활용한 이유는 노인인구규모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숫자와 노인여가 관련 예산액 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인구수는 적극적으로 노인여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시·군별 노인인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을 유형화한 뒤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의 공원 숫자와 대중교통경쟁력을 비교했다. 이는 특정지역의 공원의 분포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깊고 걷기와 산책이 경기도 노인들이 가장 자주 즐기는 여가활동이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봉원, 이원아, 박순남, 2008; 곽한병, 오세숙, 김종순, 손영미, 201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중교통경쟁력은 노인여가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활용됐다.

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의 범위

본 논문에서는 노인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노인인구 수, 재정자립도, 노인여가 예산, 노인여가 시설 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 수, 공원 수 등에 관한

경기도 기초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이러한 자료는 경기통계와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요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각 항목별로 조사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노인여가나 경기도 특정 시·군 관련 기사를 중앙 일간지 뿐 아니라 지역신문을 통해 수집해 분석했다.

2. 분석방법 및 수행체계

본 논문은 경기도 기초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각각 노인 인구와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1차 유형분류를 실시해 4개의 유형을 도출했다. 이 분류에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중위값은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며 통계학적으로 유형화 분류에 평균값과 함께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성대제, 2007).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시·군별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수, 노인여가 예산액과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인구를 2차적으로 분석해 모두 8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수에는 노인 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휴양소, 노인교실 등 4가지 시설이 포함돼 있으며 노인여가 예산에는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복지사 활동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시·군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수와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인구는 2012년 경기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시군별 노인여가 예산 금액은 경기도 노인복지과를 통해 제공받은 2014년 자료를 활용했다. 이 3가지 지수는 각각 측정단위와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백분화 표준점수로 변환해 각각의 지표를 합산했다.

본 논문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지역발전의 수준과 노인여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노인 여가적 측면을 고려해 분류한 경기도 시군별 유형화 결과를 경기도 시·군별로 지역발전의 수준을 평가한 기존의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와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군 유형별 노인여가 개선방안을 ERIC 분석법을 활용해 제시하고자 했다. ERIC 분석은 일반 경영학에서 기존에 사용해 왔던 SWOT 분석을 변형 및 발전시킨 것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블루오션을 발굴하고 관행적인 레드오션을 피하기 위해 최근 자주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Kim & Mauborgne, 2005). 이를 경기도 시·군 유형별로 차별화된 노인여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증가(increase) 및 창조(create)해야 하는 요소와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해 제거(eliminate) 또는 감소(reduce)시켜야 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다.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해 증가 및 창조해야 하는

요소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공원의 숫자와 새로운 노인 여가 프로그램 등이 주로 거론됐으며, 제거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 요소에서는 주로 지역별 대중교통경쟁력이 비교 자료로 활용됐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대상과 출처 및 분석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자료 분석 대상 및 수행체계

자료 분석 대상	출처	분석 방법
노인인구수	경기통계(2012)	1차유형화
재정자주도	경기통계(2011)	(중위값)
노인여가복지시설개수	경기통계(2012)	2차유형화
노인여가 예산액	경기도노인복지과	(백분화 표준점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인구	내부자료(2014)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경기개발원(2013)	비교 검증
공원수	경기통계(2012)	
대중교통수단 경쟁력	경기개발원(2010)	ERIC분석

III. 연구결과

1. 1차 유형분류

1) 경기도 31개 시·군별 노인인구

2012년 경기도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통계자료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고양시(95,853명), 성남시(92,664명), 용인시(87,192명), 수원시(84,211명)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으며 과천시(7,258명)와 연천군(9,347명)은 노인인구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노인인구수에 대한 중위값은 26,215명으로 산출됐으며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16개 지역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었으며 나머지 15개 지역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시 군 별	노인인구 (명)	시 군 별	노인인구 (명)
고양시	93,853	군포시	24,089
성남시	92,664	안성시	23,692
용인시	87,192	양주시	22,338
수원시	84,211	이천시	22,216
부천시	70,920	포천시	21,753
남양주시	59,429	양평군	19,794
안양시	52,773	여주군	17,619
안산시	49,523	구리시	17,158
의정부시	46,222	하남시	15,315
평택시	45,938	동두천시	13,791
과천시	43,695	의왕시	13,657
화성시	41,897	오산시	13,189
광명시	31,301	가평군	12,076
김포시	29,408	연천군	9,347
시흥시	26,709	과천시	7,258
광주시	26,215	-	-
총계 : 1,135,242			

자료: 경기통계(2012)

표 3.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유형분류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과천시, 화성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광주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군포시, 안성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군, 구리시, 하남시, 동두천시, 의왕시, 오산시, 가평군, 연천군, 과천시

2)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정자주도

표 4과 같이 2011년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통계자료 분석결과 경기 남부의 과천시(91.8), 성남시(83), 용인시(82.7), 의왕시(79.7)가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기 북부의 의정부시(64.1) 양평군(65.7), 양주시(65)와 동두천시(64.3)가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이처럼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사항이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주도의 중위값은 70.8로 산출됐으며 중위값을 기준으로 표 5와 같이 경기도 시·군을 유형화하면 16개 지역이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이고 나머지 15개 지역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표 4.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시 군 별	재정자주도	시 군 별	재정자주도
과천시	91.8	안산시	70.2
성남시	83.0	구리시	70.1
용인시	82.7	시흥시	70.1
의왕시	79.7	가평군	69.4
광명시	75.9	안성시	68.4
오산시	75.8	포천시	68.3
수원시	75.1	연천군	67.9
안양시	74.8	파주시	67.6
광주시	74.3	하남시	67.5
군포시	73.5	김포시	67.5
고양시	72.8	남양주시	66.1
여주군	72.7	양평군	65.7
화성시	72.6	양주시	65.0
부천시	72.2	동두천시	64.3
평택시	70.9	의정부시	64.1
이천시	70.8	-	-

자료: 경기통계(2011)

표 5.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유형분류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광명시, 오산시, 수원시, 안양시, 광주시, 군포시, 고양시, 여주군,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이천시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안산시, 구리시, 시흥시, 가평군, 안성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 김포시, 남양주시, 양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3) 1차 유형 종합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수와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한 결과, 노인인구가 많으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광주시로 분석됐고 노인인구는 많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으로는 남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와 시흥시가 분류됐다. 한편 노인인구는 적지만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군포시, 이천시, 여주군,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도 적고 재정자주도도 낮은 지역으로는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구리시, 하남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표 6과 같이 분류됐다.

표 6. 1차 유형종합

大노인인구, 高재정자주도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광주시
大노인인구, 低재정자주도	남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시흥시
小노인인구, 高재정자주도	군포시, 이천시, 여주군,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小노인인구, 低재정자주도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구리시, 하남시, 동두천시, 연천군

2. 2차 유형분류

1) 2차 유형분류 항목별 분석

경기도 31개 시·군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숫자, 노인여가 관련 예산액과 노인 종합복지관 이용자수는 표 7과 같이 분석됐다.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숫자에 있어서 용인시가 758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616개소), 고양시(522개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숫자가 가장 적은 곳은 노인인구가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과천시로 34개소였다. 경기도에서 노인여가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로 약 30억 6천만 원을 노인여가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성남시(약 29억 4천만 원), 용인시(약 28억 원)로 집계됐으며 노인여가예산을 가장 적게 쓰고 있는 곳은 오산시로 약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컸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로 7,698명이었으며 수원시(4,350 명)와 고양시(4,300 명)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7. 경기도 시군별 노인여가 지수

시군별	시설수	노인여가 관련 예산(원)	(단위: 원, 명)
			노인 종합복지관 이용자수(명)
수원시	417	3,055,820,000	4,350
성남시	353	2,945,620,000	7,698
안양시	246	1,083,340,000	1,937
부천시	359	1,933,800,000	2,807
광명시	113	702,600,000	850
평택시	511	2,275,660,000	2,100
안산시	242	1,343,640,000	1,690
과천시	34	487,260,000	800
오산시	101	312,400,000	0
시흥시	250	1,029,840,000	700
군포시	106	672,120,000	820
의왕시	104	1,047,620,000	1,300
하남시	115	334,300,000	400
용인시	758	2,795,200,000	1,300
이천시	379	1,399,500,000	530
안성시	451	1,665,400,000	700
김포시	284	1,137,840,000	950
화성시	616	2,292,700,000	830
광주시	251	1,034,940,000	1,000
여주군	316	1,338,720,000	550
양평군	339	1,249,480,000	200
의정부시	239	1,625,280,000	1,600
동두천시	109	682,620,000	1,650
고양시	522	2,306,500,000	4,300
구리시	129	357,880,000	210
남양주시	480	2,132,953,000	750
파주시	369	1,449,000,000	950
양주시	248	679,000,000	0
포천시	303	1,162,600,000	300
연천군	103	670,440,000	300
가평군	151	695,720,000	257

자료: 경기통계(2012),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2014)

2) 2차 유형분류 종합

3가지 항목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2차 유형화의 결과를 단일한 기준에서 분류하기 위해 백분화 표준지수로 변환한 결과 표 8과 같은 최종결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중위값은 8.0으로 산출돼 이를 기준으로 경기도 시·군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노인여가에 관련된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여주군,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16개 시·군이 유형화됐으며 반면 노인여가에 관련된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는 광명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15개 시·군이 포함됐다.

표 8. 경기도 시군별 노인여가 지수 백분화 표준점수

시군별	시설수	노인여가예산	노인 종합 복지관 이용자수	지표 합계
수원시	4.6	7.3	10.4	22.3
성남시	3.9	7.0	18.4	29.4
안양시	2.7	2.6	4.6	9.9
부천시	4.0	4.6	6.7	15.3
광명시	1.2	1.7	2.0	5.0
평택시	5.7	5.4	5.0	16.1
안산시	2.7	3.2	4.0	9.9
과천시	0.4	1.2	1.9	3.4
오산시	1.1	0.7	0.0	1.9
시흥시	2.8	2.5	1.7	6.9
군포시	1.2	1.6	2.0	4.7
의왕시	1.1	2.5	3.1	6.8
하남시	1.3	0.8	1.0	3.0
용인시	8.5	6.7	3.1	18.2
이천시	4.2	3.3	1.3	8.8
안성시	5.0	4.0	1.7	10.7
김포시	3.2	2.7	2.3	8.1
화성시	6.9	5.5	2.0	14.3
광주시	2.8	2.5	2.4	7.6
여주군	3.5	3.2	1.3	8.0
양평군	3.8	3.0	0.5	7.2
의정부시	2.7	3.9	3.8	10.4
동두천시	1.2	1.6	3.9	6.8
고양시	5.8	5.5	10.3	21.6
구리시	1.4	0.9	0.5	2.8
남양주시	5.3	5.1	1.8	12.2
파주시	4.1	3.5	2.3	9.8
양주시	2.8	1.6	0.0	4.4
포천시	3.4	2.8	0.7	6.9
연천군	1.1	1.6	0.7	3.4
가평군	1.7	1.7	0.6	3.9

2차 유형 종합분류 결과 대체로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았고 노인인구가 적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인인구가 적지만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 중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도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낮게 평가됐는데 이는 대체로 노인인구수에 따라 노인여가 시설의 숫자가 결정돼 해당지역의 시설 숫자와 이용인구가 적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노인인구가 많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가운데 남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는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높게 평가됐다. 이 같은 이유는 이 지역들이 재정자주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건립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1·2차 유형화 결과

1) 1·2차 유형화 결과 분석

1·2차 유형화 종합분류 결과 노인인구, 재정자주도, 노인여가 관련 지수(노인여가복지시설수, 노인여가예산액,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수)의 수준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표 9와 같이 분류됐다.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자주도도 높으면서,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높은 지역인 A-가형은 서울 거점 분담지역인 성남시와 고양시가 포함돼 있으며 경기거점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가 포함됐다. 반면 A-가형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D-나형은 노인인구가 적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면서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노인인구는 적지만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인구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 8위 안에 드는 지역 중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가 포함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노인인구도 적고 재정자주도도 낮은 안성시가 D-가형에 포함된 이유는 노인여가 예산액에 있어 D-나형에 포함된 지역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경로당 숫자에서도 비슷한 노인인구 규모의 양주시(D-나형)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C-나형에 속한 지역 중 군포시(25위), 의왕시(22위), 오산시(31위)는 모두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낮게 분석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9. 1, 2차 유형화 결과

유형	의미	시군	유형	의미	시군
A-가	노인인구 많음 재정자주도 높음 노인여가지수 높음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A-나	노인인구 많음 재정자주도 높음 노인여가지수 낮음	광명시, 광주시
B-가	노인인구 많음 재정자주도 낮음 노인여가지수 높음	남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B-나	노인인구 많음 재정자주도 낮음 노인여가지수 낮음	시흥시
C-가	노인인구 적음 재정자주도 높음 노인여가지수 높음	이천시, 여주군	C-나	노인인구 적음 재정자주도 높음 노인여가지수 낮음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D-가	노인인구 적음 재정자주도 낮음 노인여가지수 높음	안성시	D-나	노인인구 적음 재정자주도 낮음 노인여가지수 낮음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구리시 하남시,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표 10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비율

시군	노인인구비율(%)	시군	노인인구비율(%)
용인시	9.519	안산시	6.925
성남시	9.468	과천시	10.212
수원시	7.517	하남시	10.470
광주시	9.510	이천시	10.841
안양시	8.631	구리시	8.920
화성시	7.972	남양주시	9.912
오산시	6.584	여주군	16.083
시흥시	6.685	의정부시	10.770
김포시	10.231	안성시	13.045
의왕시	8.824	양주시	11.151
광명시	8.803	포천시	13.806
고양시	9.676	연천군	20.498
평택시	10.577	가평군	19.863
파주시	11.084	동두천시	14.191
군포시	8.398	양평군	19.369
부천시	8.152	-	-

자료: 경기통계(2012) 자료 재구성

2)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와 비교·분석

경기도 지역발전지수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인구활력도, 도시경제 기반, 도시 재정상황, 도시 기반시설 등의 지표를 통해 등급화 시킨 것으로 모두 5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역불균형 평가 및 지역 간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최종 산출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최상위인 A그룹에는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가 포함돼 있고, 최하위인 E그룹에는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시가 속해 있다.

표 11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최종 산출결과

순위	도시명(가,나,다 순)	점수
A 그룹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500점 이상
B 그룹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450점 이상 - 500점 미만
C 그룹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파주시, 평택시	400점 이상 - 450점 미만
D 그룹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하남시	300점 이상 - 400점 미만
E 그룹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시	300점 미만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13, p.31)

본 연구결과와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등급을 비교하면 경기도 지역발전지수가 가장 높은 A그룹에 속한 5개 도시 중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본 연구의 유형화에서도 최상위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A-가 형에 포함됐다. 이는 결국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발전의 수준이 높음과 동시에 노인여가에 관한 정책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경기도 지역발전 지수가 가장 낮은 E그룹에 속한 6개 시·군 중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는 본 연구의 유형화에서도 가장 낮은 D-나 형에 포함됐다. 이는 이 지역들이 경기도 내 지역발전 수준이 매우 낮고 노인인구도 적으면서 재정자주도도 낮기 때문에 노인여가 정책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와 본 연구의 유형분류에서는 차이점도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가 두 번째로 낮은 D그룹에 속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와 가장 낮은 E그룹에 속한 여주군은 비교적 노인여가 지수가 높은 B-가 형과 C-가 형에 각각 포함됐다. 이는 이 지역들이 노인인구가 많지만 경기도 내에서 지역발전지수가 낮고, 재정자주도도 낮아 노인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고양시와 과천시와 과천시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양시와 과천시는 경기도 지역발전지수가 중간 수준인 C그룹에 포함돼 있지만 고양시는 노인여가 유형화 결과 최상위인 A-가 형에 속했으며 반대로 과천시는 노인여가 지수가 낮은 C-나형에 포함됐다. 이는 두 도시의 노인여가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고양시는 노인여가예산액,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 수가 높았지만 과천시는 노인인구가 경기도 최하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여가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 각 유형별 ERIC 분석

(1) A-가 형

A-가 유형의 도시들은 대체로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적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노인여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각 도시별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시와 용인시의 경우는 많은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숫자가 각각 2개소와 1개소에 불과해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백민희, 2010). 안양시의 경우는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면적이 비슷한 A-가 유형의 다른 도시에 비해 근린공원의 숫자가 적어 신규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고양시와 비슷한 노인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성남시는 경로당 숫자가 343개소에 그쳐 고양시의 512개소보다 적은 상황이라 추가 건립이 요구된다. 한편 A-가 유형에 속한 지역은 대부분 대중교통수단 경쟁력이 높지만 화성시나 평택시는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수단 경쟁력이 떨어져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2) A-나 형

A-나 유형에 속한 광명시와 광주시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명시는 서울거점분담지역으로 서울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광주시는 경기생활권지역으로 비교적 서울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광명시는 광주시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지만 노인여가 복지시설 숫자에서는 113개소이기 때문에 광주시(251개소)에 비해 적은 편이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광주시는 도시의 면적이 광명시에 비해 10배가량 크지만 도시 공원과 근린공원이 각각 11개와 3개에 불과해 신규 공원 조성이 요구된다. 광명시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83개소이며 근린공원은 13개소이다.

표 12 경기도 도시공원 현황

(단위: 개소, 천m²)

시 군 별	도시 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 공원		역사 공원		문화 공원		수변 공원		묘지 공원		체육 공원		기타 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경기도	2,882	88,367	1,703	4,547	205	576	700	55,692	24	3,482	35	1,056	49	1,933	15	6,204	64	3,677	7	11,200
수원시	311	8,180	194	496	22	33	62	6,953	2	133	5	67	23	374	-	-	3	124	-	-
성남시	166	12,882	110	400	1	1	48	6,341	1	5	-	-	-	-	1	656	3	35	2	5,394
안양시	121	1,859	87	215	7	7	15	878	-	-	4	312	7	341	-	-	1	106	-	-
부천시	144	4,644	107	335	3	2	28	3,610	-	-	-	-	-	-	-	-	4	687	1	10
광명시	83	2,152	57	115	10	6	13	532	1	7	1	50	-	-	-	-	-	-	1	1,442
평택시	166	1,633	101	242	23	24	42	1,297	-	-	-	-	-	-	1	41	2	29	-	-
안산시	184	6,190	132	217	1	218	44	4,438	1	15	1	82	-	-	1	159	-	-	2	1,061
과천시	11	6,973	2	3	1	1	4	6,748	1	4	1	4	-	-	-	-	2	213	-	-
오산시	82	970	46	125	6	17	21	533	3	114	-	-	4	122	-	-	2	59	-	-
시흥시	101	2,798	67	155	5	14	24	2,486	1	10	3	20	-	-	-	-	1	113	-	-
군포시	104	745	89	187	1	1	12	467	-	-	-	-	1	9	-	-	1	81	-	-
의왕시	39	376	22	68	3	2	10	219	-	-	-	-	1	7	-	-	3	80	-	-
하남시	27	1,007	20	53	-	-	7	954	-	-	-	-	-	-	-	-	-	-	-	-
용인시	271	6,646	144	377	34	57	78	3,601	1	9	-	-	-	-	4	2,458	6	144	-	-
이천시	38	2,039	32	74	1	2	3	1,793	-	-	-	-	-	-	1	140	1	30	-	-
안성시	39	336	20	68	-	-	15	162	-	-	2	17	-	-	-	-	2	89	-	-
김포시	66	1,258	35	94	2	1	28	1,149	-	-	-	-	-	-	-	-	1	14	-	-
화성시	127	3,023	83	224	4	10	36	2,496	-	-	-	-	1	10	1	28	2	255	-	-
광주시	11	537	1	1	4	4	3	94	-	-	-	-	1	227	-	-	2	211	-	-
여주군	24	919	10	22	1	1	7	573	-	-	-	-	-	-	-	-	6	323	-	-
양평군	13	441	1	2	6	7	3	336	-	-	-	-	-	-	-	-	3	96	-	-
의정부시	80	669	62	130	2	3	16	536	-	-	-	-	-	-	-	-	-	-	-	-
동두천시	35	3,469	25	53	-	-	8	117	-	-	-	-	1	6	-	-	-	-	1	3,238
고양시	234	6,186	140	437	9	9	80	5,142	2	331	4	42	1	70	-	-	3	155	-	-
구리시	49	588	38	84	1	1	7	408	-	-	-	-	-	-	-	-	3	95	-	-
남양주시	121	4,009	67	156	13	26	27	1,219	3	1,398	3	19	1	11	2	1,000	5	180	-	-
파주시	154	4,770	44	110	40	80	41	1,860	7	396	9	197	6	738	3	1,085	3	304	-	-
양주시	46	1,005	31	72	2	10	9	264	-	-	1	4	2	18	1	637	-	-	-	-
포천시	13	1,330	8	22	-	-	2	172	1	1,060	-	-	-	-	-	-	2	76	-	-
연천군	12	317	4	10	3	39	5	268	-	-	-	-	-	-	-	-	-	-	-	-
가평군	6	466	-	-	-	-	2	46	-	-	1	242	-	-	-	-	3	178	-	-

자료: 경기통계 <http://stat.gg.go.kr> 「2012 공원」

(3) B-가 형

대체로 B-가 유형에 속한 도시들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파주시, 의정부시와 상대적으로 낮은 김포시, 남양주시, 안산시로 크게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도 많고 노인인구 비율도 높은 파주시와 의정부시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시의 노인인구가 파주시보다 많지만 노인여가 기반시설 개수는 239개소로 파주시(369개소)에 비해 적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안산시와 김포시를 비교하면 안산시가 김포시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지만 여가기반 시설 개수가 242개소로 김포시(284개소)에 비해 적어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4) B-나 형

B-나 유형에 속한 시흥시는 노인여가 예산액이 다소 적어 이 유형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인구 규모가 비슷한 B-가 형의 김포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시흥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6.7%로 경기도에서 오산시(6.6%)에 이어 가장 낮은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한 도시로 노인만을 위한 여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노인과 아동 또는 중·장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C-가 형

C-가 유형에 속한 시·군인 이천시와 여주군은 모두 노인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노인여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비교적 잘 구비하고 있다. 특히 여주군은 노인인구 숫자가 비슷한 양평군 등 경기도 내 다른 군 지역에 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공원시설이 많은 편으로 분석돼 다른 경기도 지역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6) C-나 형

C-나 유형에 속한 도시 중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는 같은 경기생활권 지역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과천시 서울 의존도가 높고 도시 재정력에서 경기도 최고 수준이며, 노인인구가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나머지 3개 도시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도시로 분류되지만 노인인구가 적은 상황이라 지금까지 노인여가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천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경기도에서 중위권인 15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노인여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왕시는 공원의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청계산, 백운산 등 6개 산과 왕송호수 등 호수에 둘러싸여 있기 때

문에 2013년 경기도에서 가장 건강한 장수 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환경일보, 2013. 12. 4).

(7) D-가 형

D-가 유형에 속한 안성시는 노인인구 규모에 있어서는 D-나 유형에 포함된 지역과 유사하지만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잘 갖춘 특징을 갖고 있다. 안성시의 문제점은 대중교통을 활용한 시 내부의 이동성이 좋지 않다는 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친환경 채소 재배 및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로, 농사에 경험이 많은 안성시 거주 노인들이 도시를 떠나 새롭게 귀농한 중년층에게 농사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뉴스통신, 2013. 1. 18). 특히 이 같은 교류를 통해 노인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8) D-나 형

D-나 유형에 속한 시·군 가운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은 경기 북부의 경제 활력도가 낮은 시·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나머지 구리시와 하남시는 서울 의존도가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여가 기반시설과 노인여가 관련 예산액을 기준으로 D-나 유형을 구분하면 양평군, 동두천시, 양주시가 높은 편이며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하남시, 구리시는 낮은 편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됐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시·군이 집중돼 있는 D-나 유형은 기본적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정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외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향유를 위해 찾아오는 여가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노인인구와 재정관련 기초 통계 및 노인여가 인프라 환경조사를 통해 이들 시·군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과 개선점을 추출해 향후 노인여가와 관련된 경기도의 각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한 논의점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자주도도 높으면서 노인여가 관련 지수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 A-가 형부터 노인인구가 적고 재정자주도도 낮으면서 노인여가 관련 지수 낮은

지역을 의미하는 D-나 형까지 모두 8가지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 보다는 노인인구의 규모가 노인여가 관련 지수의 편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정자주도 보다는 노인인구의 규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노인 여가 관련 예산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인인구가 많은 시·군 16개 중에서 높은 노인여가 지수를 보인 시·군이 13개로 낮은 노인여가 지수를 나타낸 3개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반대로 노인인구가 적은 시·군 15개 중에서 낮은 노인여가 지수를 보인 시·군은 12개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높은 시·군 16개 가운데 높은 노인여가 지수를 나타낸 시·군은 10개인데 비해 낮은 노인여가 지수를 보인 시는 6개였으며, 반대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 15개 중 낮은 노인여가 지수를 나타낸 시·군은 9개였고 높은 노인여가 지수를 나타낸 시는 6개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재정자주도가 높지만 노인여가 지수가 낮거나 반대로 재정자주도가 낮지만 노인여가 지수가 높은 지역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각 유형별 분석결과 8개의 유형 가운데 노인여가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유형은 8개 시·군이 포함된 D-나 형으로 보여 진다. D-나 형은 노인인구는 적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경기도 북부의 시·군이 몰려 있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노인여가 기반시설과 노인여가 관련 예산액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이 유형에 속한 지역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재정을 투입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경기복지재단, 2009). 특히 D-나 유형의 지역 가운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양주시와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연천군, 가평군과 양평군의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신규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백민희, 2010; 경기통계, 2012).

또한 이 지역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찾아가는 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D-나 유형에 속한 경기도 북부 지역들의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게이트볼 등 농촌 특유의 강한 연대감을 장려할 수 있는 팀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농촌의 노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도시와 농촌 거주 노인의 여가 생활에 관한 비교 연구(Su, Shen & Wei, 2006)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도시 거주 노인들보다 이웃을 방문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는 데에 있어 더 적극적이며 그 주된 이유는 농촌의 강한 지역 유대감과 혈연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했다.

노년기의 규칙적인 스포츠 참가가 우울증 완화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김설향(1998)의 연구를 통해 봤을 때, 경기도 북부 지역은 노인들의 우울증, 소외감 등으로 비롯된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이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촌 지역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자본이 도시 지역보다 노인의 우울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손용진, 2010).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가운데 팀 스포츠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8개 도시들이 포함된 A-가 유형은 D-나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노인인구도 많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이라 노인여가 예산액이나 여가복지 시설 숫자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 유형에 속한 도시들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로서 공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볼 수 있어 근린공원 등의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농촌이나 도·농 복합도시에 비해 자주 즐기는 여가스포츠 활동으로 걷기를 꼽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A-가 유형의 도시에서 공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경기복지재단, 2009). 대체로 A-가 유형의 도시들은 공원 조성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안양시의 경우는 근린공원의 숫자가 적어 신규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경기도에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이런 이유로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적 지위 박탈과 역할 상실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여가 활동의 참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Leitner & Leitner(1996)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수준이 높고 지적 욕구가 강한 A-가 유형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이킹, 골프, 자전거 등 야외 여가활동 및 관광 프로그램과 함께 역사와 문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접목한 엘더호스텔(Elderhostel)을 벤치 마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경기복지재단, 2009). 엘더호스텔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여가만족도는 상승했으며 그 이유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탐방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Thomas & Butt, 1997).

넷째, D-나 유형처럼 노인 여가와 관련된 제반 여건 마련이 시급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경기도 차원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노인 여가의 측면에서 부분적인 개선점만 존재하며 시 차원에서 충분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력이 있는 A-가 유형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노인 여가 정책은 같은 유형에 속한 지역을 비교해 서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개선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하지만 노인인구 규모와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시·군의 경우는 노인 여가환경 개선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아동이나 중년층과의 세대 간 교류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도시는 경기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와 경기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적은 과천시로, 시흥시(B-나 형)를 제외하면 모두 C-나 형에 속한 도시들이다.

이 도시들에서는 아동들과 노인들이 같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노인과 아동에 대한 여가복지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에서는 기존의 시립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책 읽어 주는 할머니’ 사업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시킨다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아동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세대통합기구(Generations United)가 주도하고 있는 세대 간 교육 센터(International Learning Center)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교육 센터에서는 주로 미취학 아동들과 노인들이 미술, 음악, 게임 등의 교육을 함께 받고 있으며 교육 시간 외에는 이들이 시설을 공유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Goyer, 2001).

다섯째, 나머지 유형의 도시 가운데 주목되는 곳은 B-가 유형에 포함된 5개 도시 중 남양주시, 의정부시와 파주시이다. 이 도시들은 노인인구가 많지만 경기도 지역발전지수로 등급화 했을 때 두 번째로 낮은 D그룹에 분류됐고 재정자주도도 낮은 편이라 노인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 관련 예산확보와 시설 건립 등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으로 이와 비슷한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경기도 다른 지역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해 실제로 각 시·군이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인 여가 정책을 추진할 지에 대해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노인들의 경제수준, 결혼상태, 교육정도, 건강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해 시·군별 특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해 지역별 노인 여가의 정책방향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차별화 돼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문헌

- 곽한병, 오세숙, 김종순, 손영미. 2013. “경기도 거주 노인의 미래 여가복지 수요를 위한 통합연구.” 경기도의회.
- 경기개발연구원. 2010. 「경기도 시군별 교통경쟁력 비교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복지재단. 2009. 「2014 경기노인복지 비전수립」 경기복지재단.
- 경기통계. 2012. “2012 공원”. 경기도.

- 경기통계. 2012. “2012 노인여가복지시설”. 경기도.
- 경기통계. 2012.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경기도.
- 경기통계. 2011.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주도”. 경기도.
- 경기도 노인복지과. 2014.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노인여가활동 지원”. 경기도청.
- 김명미. 2013. “평생 교육적 여가스포츠를 통한 디지털 시대의 신 노인상 정립.”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8(6): 933-940.
- 김봉원, 이원아, 박순남. 2008.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 및 과제.”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지」 4(3): 1-5.
- 김선희. 2009. “노인체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노인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자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 661-676.
- 김설향. 1998.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스포츠 활동의 역할.” 「한국사회체육학회 학술세미나」 12: 29-49.
- 김설향, 정복자. 2009. “노인전문체육지도자 양성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791-798.
- 김양례. 2012. 「노인시설의 체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체육과학연구원.
- 김양례. 2013.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체육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지원 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 27(4): 31-49.
- 김용국, 이경숙, 2011. “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정서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7-15.
- 김정현, 김헌일, 2012.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선호도 분석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615-628.
- 대한민국정부. 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대한민국정부.
- 백민희. 2010.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 성태제. 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손신영. 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6(3): 601-615.
- 손용진. 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2(3): 311-339.
- 안병주, 김희정. 2008. “고령화 사회와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로 무용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제언적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659-669.

- 임태성, 최성락, 백선아. 2009. “서울시 소재 자치구의 노인 여가스포츠정책 비교.”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 519-527.
- 이근배. 2013, “천혜의 자연을 품은 도시, “의왕” 큰 관심.” 「환경일보」 (12월4일).
- 이석구. 2013. “안성농업기술센터, 2013년 안성시녹색농업대학 수강생 ‘모집’.” 「아시아뉴스통신」 (1월18일).
- 이성호. 2010, “경기 노인인구 전국 첫 100만명 돌파.” 「동아일보」 (8월24일).
- 정경자, 박정근, 김성문. 2014. “효과적인 노인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한 질적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3(6): 151-166.
- 최용재, 박기주, 최덕환. 2012. “전북지역 노인 여가스포츠정책 현황과 비교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 749-760.
- 통계청. 2005. “2005 장애인구 특별추계.” 통계청.
- Iso-Ahola S. E., & Park 1996. “Leisure related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as buffers of stress - 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169-187.
- Goyer, A. 2001. “Intergenerational Shared Site and Shared Resource Programs:Current Models.” Washington D.C. Generations United Background Paper.
- Kim, W. Chan, & Mauborgne R. 2005. “Blue ocean strategy: How to create uncontested market space and make competition irrelevant.” Boston, MA: Harvard Business Press.
- Leitner, M. J., & Leitner, S. F. 1996. “Leisure in later life.” Binghamton, NY: Haworth Press.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Su, Baoren, Shen, Xiangyou, & Wei, Zou. 2006. “Leisure Life in Later Years: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Elderly Residents in Chin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8(3):381-397.
- Thomas, D. W., & Butts, F. B. 1997. “Assessing Leisure Motivators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Elderhostel Participant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7(1): 31-38.

접수일 (2014. 12. 31)

수정일 (2015. 01. 14)

게재확정일 (2015. 01. 22)

A Study on Regional Differentiation to Encourage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

Oh, Sae Sook · Lee, Jong Sung · Kim, Jong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elderly leisure and welfare infrastructures of thirty-one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to compare it with Gyeonggi province development index and to suggest improvement schemes for the elderly leisure and welfare by type. For this aim, this study has classified types by utilizing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facilities for the aged,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using them,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estimated revenues for the elderly leisure by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first classification process has resulted in four types such as large elderly population with high revenues for elderly population, large elderly population with low revenues for elderly population, small elderly population with high revenues for elderly population and small elderly population with low revenues for elderly population by using two variables: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and estimated revenues for the elderly leisure. The second classification process has identified four types based on the degree of the elderly leisure index through the four types resulting from the first process. Second, these classified types have been compared with Gyeonggi province development index in order to find common feature and difference. Third, this study has conducted ERIC analysis of the 8 types. In this analysis the number of facilities for elderly leisure and welfare, and the number of urban parks have been used as increasing and creating factors to promote the elderly leisure; on the other hand transportation competitiveness by regions has been also used as eliminating and reducing factors for the same purpose.

Key words: Gyeonggi province, elderly leisure, ERIC analysis, classification of cities, leisure policy

* This research w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the Forum on Ageing Society” funded by Gyeonggi Provincial Assembly